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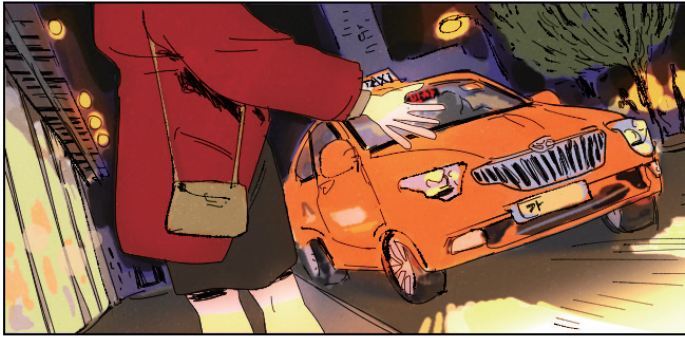
어느 택시운전사의  
불면증

—  
김세림



의정부역 까지요.

네~.



### 어느 택시기사의 불면증

6년 내내 반장, 회장을 했을 정도로 똑똑했죠. 참 희한하지, 그 이름 가진 사람들은 다 똑똑한 가 봐요.

김영란씨가 중심지 바닥을 바꿔놓았단니까. 왜, 종로 같은 데 말이에요.



어릴적 등장중에 김영란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접대받던 사람이나 하는 사람 다 사라지고 연말 종로 밤거리가 조용해졌어요. 안 그래도 새벽까지 운전하는 게 힘에 부쳤는데 잘 됐지 뭐.



김영란..

그래요?

작년 연말, 나는 오후 촬영에 쓰일 소품을 가지러 의정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는 혼자서 만담을 하듯 반말, 존댓말을 섞어가며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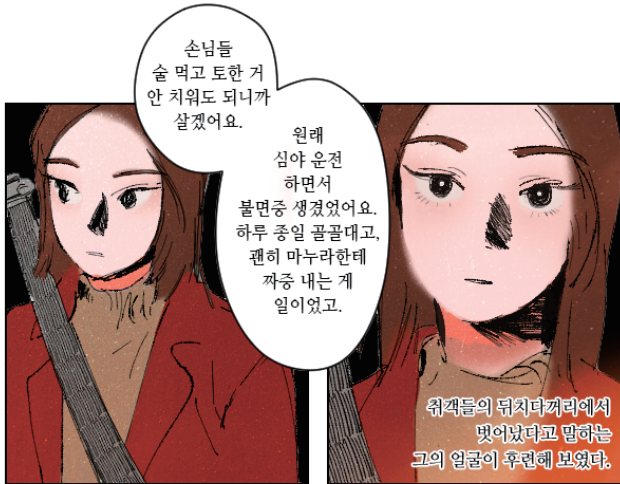
10년 전 퇴직하고 나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는 그는 승객과 대화하는 것이 취미인 했다.

생각해 보니 얼마 전부터 종로의 밤 풍경들이 달라지기는 했다. 그 무렵 어느 때 같으면 종로 거리는 송년회 등 각종 연말 행사를 치르고 나온 취객들로 넘쳐났다.





그런데 2016 연말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직장인들도, 더부룩한 속을 달래는 대학생들의 모습도 전에 비해 많이 찾아볼 수 없었다.



손님들 술 먹고 토한 거 안 치워도 되니까 살겠어요.

원래 심야 운전 하면서 불면증 생겼었어요. 하루 종일 꼴덜대고, 괜히 마누라한테 짜증 내는 게 일이었죠.

취객들의 뒤치타거리에서 밧어났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이 후련해 보였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간 남들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나의 경우도 그와 비슷했다.

홍보 간행물을 대형 제작하는 기획사에 다녔던 나는 취재와 촬영, 편집과 교정이 주요 업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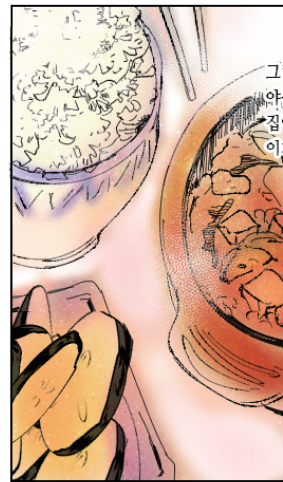


그리고 연말에는 대부분의 홍보 기획사들이 그러하듯 간행물 제작과 재계약을 매끄럽게 성사시키기 위한 발주사 접대를 제법 했다.



저녁까지 업무를 하고 고직파의 접대를 하다 보면 하루가 타 지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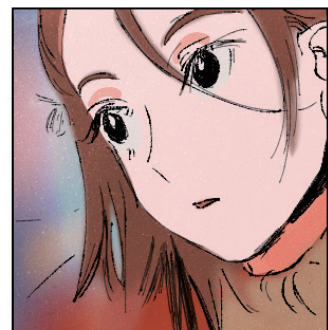
그야말로 별 보며 출근해 별 보고 퇴근하는 '새벽 별 보기 운동'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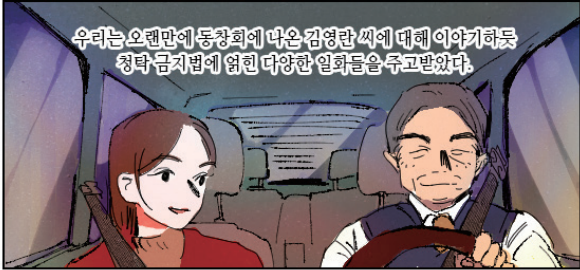
그런데 2016년은 달랐다. 야근은커녕 정시 퇴근이 더 많았다. 길에 오면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이제 갓 지은 잠곡밥이 올라왔고



엄마와 나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다정하게 식사를 했다.



기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 모든 변화가 청탁 금지법이 내게 가져다준 작은 선물이었음을 득도하듯 알았다.



우리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온 김영란 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청탁 금지법에 얽힌 다양한 일화들을 주고받았다.



얼마 전 내가 다니는 기획사로 모 공기업 사보 담당 직원이 최종 교정을 보러 왔다. 나는 그에게 간식으로 샌드위치를 주었다.

드시면서 하세요.



청탁 금지법 때문에 먹기가 좀 ... 다른 분 드리세요.



저우 삼 천원 짜리예요. 괜찮아요!



회의실을 정리하러 들어갔을 때 손도 대지 않은 샌드위치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기획사에서 일하며 식사나 티피 대접의 일상이었던 나로서는 처음 느끼는 문화적 충격이었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하하.

처음엔 그랬는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구나, 감탄하게 돼요.



그때까지 나는 청탁 금지법이 공직자, 언론인, 사학인 등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면만 본 것이었다.

청탁 금지법은 어느새 우리 사회를,

더 나아가 나의 일상과 문화를 바꾸고 있었다.

